

# 『*The Catcher in the Rye*』의 한·일 번역 비교

- 충실성과 가독성의 관점에서 -

오 경 순\*

---

## 目 次

---

1. 들어가며
  2. 고찰 자료
  3. 홀든 콜필드의 어휘·말투의 의미 및 효과
  4. 번역 평가의 기준과 영역
    - 4.1 번역 평가의 기준
    - 4.2 충실성(faithfulness) 과 가독성(readability)의 영역
  5. 홀든 콜필드의 어휘·말투의 한·일 번역 비교
    - 5.1 「sad」의 한·일 번역 비교
    - 5.2 「phony」의 한·일 번역 비교
    - 5.3 「kill」의 한·일 번역 비교
    - 5.4 「you」의 한·일 번역 비교
    - 5.5 「and all」의 한·일 번역 비교
    - 5.6 「strictly for the birds」의 한·일 번역 비교
  6. 나오며
- 

## 1. 들어가며

번역의 정의는 번역자의 수만큼 많다.  
번역을 이야기할 때 ‘저울질’이라는 말이 흔히 인용된다. 프랑스 작가이자

---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일한번역

번역가인 발레리 라르보(Valery Larbaud)는 “번역은 말의 무게를 다는 것이다. 즉 저울의 한쪽에 저자의 정신이 놓아둔 말을, 다른 쪽에는 번역어를 올려놓고 이들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맞춰가는 작업”이라고 정의했다.<sup>1)</sup> 번역은 반역(半譯) 밖에 안 된다든지, 필연적으로 반역(反逆)일 수밖에 없다든지 하는 말이 있지만, 이런 말들은 모두 번역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반어적인 표현이다.

모든 번역은 그것이 짙막한 실용문의 번역이 아니라 문학작품의 번역인 경우에는 출발언어(Source Language, 원문)의 내용이나 형식<sup>2)</sup>에 대한 충실성과 도착언어(Target Language, 번역문)로 옮겨진 미적 가치, 즉 가독성이란 두 가지 상반된 기준의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실제 번역에 있어서 원문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충실성과 번역문의 가독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번역이란 충실성과 가독성의 취사의 기로에서 끊임없이 힘든 선택을 해야만 하는 지난한 작업이다. 번역은 단순한 ‘옮기기’가 아닌 출발언어권의 독자의 반응과 언어효과와 감동이 그대로 도착언어권의 독자의 반응과 언어효과와 감동으로 전달되어야 좋은 번역이라 할 수 있다.

『The Catcher in the Rye』는 셀린저(J. D. Salinger)<sup>3)</sup>를 단번에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어준 작품으로 거침없는 언어와 사회성 짙은 소재로 1951년 출간되자마자 전후 세대의 젊은 층을 사로잡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현재에도 매년 30만부 정도가 팔리고 있으며 노벨상 수상 작가 윌리엄 포크너조차도 “당대 최고의 작품(best work of the present generation of writing)”이라고 극찬한 작품이다.<sup>4)</sup> 또한 이 작품은 존 레논의 암살범 마크 데이빗 체프먼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저격범인 존 헝크리가 탐독한 소설로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존 레논의 암살범 마크 데이빗 체프먼은 암살 순간 그의 손에 『The Catcher in the Rye』가 들려 있었으며 그의

1) 쓰지 유미(辻有美)(2001) 『번역사 산책』 이희재 옮김 공리출판 머리말

2) 본고에서는 문장의 분리와 통합·단락구분·문장 부호·띄어쓰기 등을 말한다.

3) 셀린저는 1919년 미국 뉴욕시에서 부유한 유대계 아버지와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 펜실베이니아에서 벨리포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대와 컬럼비아 대학교 등에서 창작수업을 받았다. 2차 세계대전 중 보병으로 소집되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참가하였으나, 군 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입원하기도 했다. 셀린저는 단편 작품들을 주로 『뉴요커 The New Yorker』에 발표했다. 그리고 단 한편의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1951)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공경희역(2001) 『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 민음사. 부록: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와 호밀밭의 파수꾼]

4) 김성곤(2005) 『J.D. 셀린저와 호밀밭의 파수꾼』. 살림출판사. p.38

암살 동기는 거짓과 가식에 대한 콜필드의 절규 때문이라고 밝혔다.

『The Catcher in the Rye』는 주인공 홀든 콜필드(Holden Caulfield)가 학교에서 또 한번의 퇴학을 당해 집에 돌아오기까지 며칠간 겪는 일들이 독백으로 진행되는 작품이다. 콜필드는 정신적으로 파괴되어 가지만 그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 질서에 잘 적응하고 살아간다. 또한 『The Catcher in the Rye』는 성에 눈떠 가는 소년의 눈으로 본 세상의 인간 조건에 대한 예민한 성찰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 소설이다.

『The Catcher in the Rye』의 번역에 있어서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은 주인공인 청소년 홀든 콜필드가 빈번하게 구사하는 속어와 비어 및 습관적으로 굳어진 홀든 특유의 어휘와 말투,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길게 연결하면서 서술하는 주인공의 내적 고백의 어감을 어떻게 잘 전달하는가 하는 번역의 정확성과 더불어 어감 전달의 적절성 및 우리말 표현의 적합성에 있다.<sup>5)</sup>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The Catcher in the Rye』<sup>6)</sup>의 주인공 홀든 콜필드 특유의 어휘나 말투가 작품에 부여하는 의미 및 효과에 대해 살펴봄과 동시에 한국어역과 일본어역을 충실성(번역의 정확성 및 어감 전달의 적절성)과 가독성(우리말 표현의 적합성)의 관점에서 비교·고찰함으로써 한·일 번역의 공통점과 차이점, 번역의 다의성 나아가 번역의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 2. 고찰 자료

원전	J.D.Salinger(1991) 『The Catcher in the Rye』 KODANSHA English Library
한국어역	1. 이덕형역(1998) 『호밀밭의 파수꾼』. J.D.셀린저. 문예출판사 2. 김옥동·염경숙역(2005년) 『호밀밭의 파수꾼』. J.D.셀린저. 현암사 3. 공경희역(2001) 『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 민음사

5) 영미문학연구회번역평가사업단(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호밀밭의 파수꾼』의 분석과 평가. (주)창비. p.239

6)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은 스코틀랜드의 민요 「밀밭에서」의 한 구절을 따온 것이다. 김옥동(2001) 『미국 소설의 이해』. 서강 인문정신 006. 종합공동체 소나무간행 p320

일본 어역	1. 野崎孝訳(1964) J.D.サリンジャー 『ライ麦畑でつかまえて』. 白水社 2. 村上春樹訳 (2003) J.D.サリンジャー 『キャッチャー・イン・ザ・ライ』. 白水社
----------	--

『*The Catcher in the Rye*』의 최초의 한국어역본<sup>7)</sup>은 1963년에 나왔으며, 가장 최근에 출간된 공경희역 민음사본을 포함한 총 판본은 35개이다.<sup>8)</sup> 한국어 번역본을 검토한 결과 각각의 번역본에는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은 있으나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수준이며 대체로 무난한 번역본이라 생각되는 이덕형역의 문예출판사본(1985년 초판, 1998년 재판), 김옥동·염경숙역의 현암사본(1994년 초판, 2002년 재판, 2005년 3판), 공경희역의 민음사본(2001년 초판, 2002년 재판) 세 가지를 고찰 자료로 선정 선정하였다.

한편, 일본어 번역본으로는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역과 노자키 다카시(野崎孝)역을 고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 이유로는 무라카미 하루키는 『*The Catcher in the Rye*』의 존재감을 자기 나름대로 재평가·재검증하고 싶은 욕망에서 번역에 임했다고 할 만큼 정성을 기울여 번역했으며, 시바다 모토유키(柴田幸)와의 대담으로 이루어진 『*キャッチャー・イン・ザ・ライ(The Catcher in the Rye)*』의 해설서격인 『번역야화 2 쉼터 전기(翻訳夜話2 サリンジャー戦記)』(文芸春秋, 2003)에서 『*The Catcher in the Rye*』번역에 임하는 자세 및 번역에 대한 해설과 번역할 당시 무라카미 하루키가 주목하고 배려했던 점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자키 다카시역은 무라카미 하루키역과 자주 비교·거론되어지며 또한 노자키역이 가장 권위 있는 번역본으로 애독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고찰 자료로 선정하였다.

### 3. 홀든 콜필드의 어휘·말투의 의미 및 효과

이 소설에서 사용되는 홀든 콜필드 어휘의 대부분은 1950년대 무렵의 미

7) 1963년 한 해에 초역본 2개가 등장했다.

유경환·노빈역(1963, 2월 『호밀밭의 파수꾼』. 평화출판사

한명석역(1963, 5월 『호밀밭의 파수꾼』. 태문당

영미문학연구회번역평가사업단(2005) 前掲書 p.223

8) 영미문학연구회번역평가사업단(2005) 前掲書 p.223 : 확인 판본수: 35, 확인본 역자수: 23인

국 뉴욕 근방의 유행어인데, 그러한 특수한 형태로 기술된 어휘를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역할 때는 그것에 대응하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세속적 유행어를 어느 정도까지 번역할 것이냐 하는 번역 수위 조절이 실제 번역시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 소설이 재미있는 것은 주인공 홀든 콜필드의 어휘는 그다지 많지는 않으나 똑같은 말을 몇 번씩이고 되풀이해서 사용하면서도 문맥에 따라 느낌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요컨대 『The Catcher in the Rye』 번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인공 홀든 콜필드의 거칠 것 없는 언사, 당시로써는 사회적 터부였던 적나라한 욕설 그리고 그의 저항적 태도를 나타내는 속어와 비어 및 독특한 어휘와 말투의 비중이 큰 소설인 만큼 번역의 성공 여부도 그러한 홀든 콜필드의 어휘와 말투의 어감을 어떻게 적절하게 담아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홀든 콜필드의 독특한 어휘와 말투라 할 수 있는 「sad」, 「phony」, 「kill」, 「you」, 「and all」, 「strictly for the birds」를 중심으로 충실성과 가독성의 관점에서 한·일 번역을 비교 고찰하기로 한다.

## 4. 번역 평가의 기준과 영역

### 4.1 번역 평가의 기준

번역 작품도 그 자체로 하나의 문학 작품인 만큼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일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어떤 번역이 좋은 번역인가에 대한 시각은 다양할 수도 있고 학문적으로도 번역 이론, 개념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다. 그러나 어떠한 번역이 좋은 번역인가에 대한 예측은 가능하다.

실제 번역에 있어서 출발언어의 내용과 형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번역했는가에 대한 번역문의 충실성과 도착언어로 옮겨진 미적가치 즉 가독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만 좋은 번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 텍스트(Target Text)는 일차적으로는 도착언어(Target Language)의 체계에 적합하여 부자연스럽거나 생경하거나 번역투가 되지 않아야 하며, 이차적으로는 출발언어의 언어 내적·외적 의미에 부합하는 오역 없는 정확한 어감 및 의미전달을 목표로 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원본의 번역물로서 갖추어야 할 충실성과 한국어 및 일본어 텍스트로서의 가독

성의 영역을 4.2와 같이 규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한·일 번역을 비교 고찰하기로 한다.

### 4.2 충실성(faithfulness) 과 가독성(readability)의 영역<sup>9)</sup>

충실성 (faithfulness)	번역문이 원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번역했는가를 판단하는 영역으로 단어 구절 문장 등에서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번역의 빈도나 정도를 판별한다. 원문(Source Text)과 번역문(Target Text)과의 관계 개념. 번역의 정확성과 어감 전달의 적절성이 충실성의 범주에 해당한다. ⇨ 부정확 : 원문의 단어나 구절, 문장의 원의와 동떨어진 번역. ⇨ 부적절 : 대강의 의미는 전달되나 적절하지 못한 단어 표현을 사용하여 정확한 의미전달에 실패한 경우.
가독성 (readability) <sup>10)</sup>	번역문의 우리말 구사 수준을 판단하는 영역으로 대개 문장 차원에서 어색하거나 생경하거나 비문인 정도가 어떠한지를 판별한다. 다만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낮은 역어나 구문을 선택한 경우는 역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번역문(Target Text)과 번역문 독자와의 관계 개념. 독자 중심의 개념. 우리말 표현의 적합성이 가독성의 범주에 해당한다. ⇨ 부적합 : 도착언어와 문화로 변환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비문·오문·생경한 번역투 <sup>11)</sup> 문장 문화 변환의 오류 등.

9) 번역의 질을 평가하는 기본 범주로서 충실성과 가독성의 영역은 필자의 용어가 아닌, ‘영미문학 연구회’ 소속 연구자 44명이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년 반에 걸친 공동작업 끝에 완성한 아래 연구보고서 안의 번역 평가의 범주와 기준을 인용했음을 밝힌다. 영미문학연구회번역평가사업단(2005) 前掲書 pp. 21-22 참조하여 정리.

10) readability 1. (책 따위가) 읽기 쉬운, 읽기에 재미나는, 통독할 수 있는, 재미있게 읽을 수(쓰여) 있음.

2. (문자 따위가) 읽을 수 있는, 읽기 쉬운

legibility 1. (글자가, 문자의) 읽기 쉬움.

2. (활자의) 인쇄효과

출처: 『e4u영한사전』 YBMsisa & NAVER 영어사전 참조

11) 우리말에 남은 외국어의 흔적을 번역학에서는 ‘번역투(translationese)’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글이 원문(original text)이 아닌 번역문(translated text)이라는 흔적이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 5. 홀든 콜필드의 어휘·말투의 한·일 번역 비교

### 5.1 「sad」의 한·일 번역 비교

「sad」의 의미 : 悲しい(슬픈, 애처로운 딱한, 구슬픈), 哀れな(애처로운, 가엾은, 불쌍한, 딱한, 가련한), うんざりするよな(진절머리 날 듯한 지긋지긋한, 싫증나는), なさけない(한심한, 딱한, 비참한, 실망스런, 정나미 떨어지는), 切ない(애절한, 가슴이 옥죄는, 안타까운)

What made it even more depressing, old Spencer had on this very **sad**, ratty old bathrobe that he was probably born in or something.  
(Salinger, *The catcher in the Rye*, p.14)

[K1] 게다가 나를 더욱 침울하게 한 것은 그가 **초라하고** 낡은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 옷을 입고 나온 것 같았다. (이덕형역 『호밀밭의 파수꾼』 p.15 이하 이덕형역)

[K2] 그보다 더 맥 빠지게 하는 건 선생이 갓난애였을 때부터 걸쳤을 법한 **후줄근하고** 낡은 목욕 가운을 걸치고 있다는 겁니다. (김옥동·염경숙역 『호밀밭의 파수꾼』 p.15 이하 김옥동·염경숙역)

[K3] 이 모든 것들이 내 기분을 한층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 스펜서 선생은 아주 **가련하게 보였고**, 초라한 목욕 가운을 입고 있어서 한층 더 그렇게 보였다. (공정희역 『호밀밭의 파수꾼』 p.17 이하 공정희역)

[J1] それにも増して僕をめげさせたのは、先生が身にまわっている **切なく**しょぼくれたバスローブだった。それに包まれたまま生まれてきたんじゃないかと思えるくらい、古っばい代物だった。 (村上春樹訳 『キャッチャー・イン・ザ・ライ』 p.15 이하村上訳)

---

출현하는 글의 특성이 바로 번역투이다. 번역투란 직역의 번역방법으로 산출된 번역문에 존재하는 원문 외국어 구조의 전이 흔적으로, 관점에 따라 이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모국어의 구조에서 볼 때 고유의 규칙을 어긴 이질적인 존재라는 측면에서는 번역투가 극복의 대상이 되지만, 더 나은 번역의 결과를 얻기 위한 번역 교육에 투입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는 측면에서는 번역투가 폐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소중한 교육자료이다. : 김정우(2003) 「국어 교과서의 외국어 번역투에 대한 종합적 고찰」. 『배달말』 33. 배달말학회. pp.143-144

[J2] このときの先生は、生まれたときにそいつでくるともらったんじゃないかって気がするくらい古ぼけた、情けないバスローブを着てやがったんだ。

(野崎孝訳『ライ麦畑でつかまえて』 p.14 이하 野崎訳)

「sad」는 이덕형역, 김옥동·염경숙역에서는 「초라한, 후줄근한」으로 번역되었으나, 담요를 묘사하는 「sad」의 번역을 공경희역에서는 수식의 대상이 바뀐 스펜서 선생은 아주 「가련하게 보였고」라는 원문의 의미와는 동떨어진 부정확한, 즉 충실하지 못한 번역이 되었다. 한편 노자키역에서는 「실망스런, 추레한, 풀이 죽은(うらぶれた), 맥 빠지는(しょぼい)」 등의 경멸감이 느껴지는 번역인데 비해, 무라카미역에서는 「애절한, 가슴 저미는」으로 오히려 동정이나 공감이 느껴지는 번역이 되어 뉘앙스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원문의 한 문장을 임의적으로 두 문장으로 나누어서 번역한 이덕형역, 공경희역, 무라카미역은 충실성의 문제로 지적할 수 있겠다. 또 홀든이라는 인물이나 그의 말투로 보아 그가 하는 독백투 이야기의 잠재적 청중은 어른이라기보다는 그의 동년배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어투도 경어체 보다는 평어체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우며, 경어체 선택은 홀든의 비속어 구사와도 일정한 괴리를 보여준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경어체로 기술한 김옥동·염경숙역은 가독성 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만하다.<sup>12)</sup>

## 5.2 「phony」의 한·일 번역 비교

「phony」의 의미 : にせ의(위조의, 모조의, 가짜의), いんちきの(부정의, 속임의, 가짜의, 엉터리의, 명사의 경우: 허위, 가짜, 사이비, 위조품, 사기꾼)

Grand. If there's one word I hate, it's grand. It's so phony.

(Salinger, p.164)

[K1] 멋지다고! 내가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멋지다는 말이다.

그것은 가식적인 말이기 때문이다.

(이덕형역, p.149)

12) 경어체 사용에 대해 역자들(김옥동·염경숙)은 “일인칭 화법의 효과를 살리기 위하여 모두 경어체로 옮겼다. 그렇게 해야 홀든의 고백을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쨌든 이 소설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내용 못지않게 표현 방법과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라고 말했다.

김옥동·염경숙역(2005년) 『호밀밭의 파수꾼』. J.D.셀린저. 현암사. p.363

[K2] ‘멋지다.’ 내가 끔찍이도 싫어하는 말이 있다면, 그건 바로 ‘멋지다’라는  
말입니다. 위선적으로 들리니까요. (김옥동·염경숙역, p.175)

[K3] <멋지다>라니, 내가 싫어하는 말이 있다면 그건 멋지다는 말이다.  
너무 가식적인 말이기 때문이다. (공경희역, p.144)

[J1] ご機嫌ときたね。何がいやとって、こんないやな言葉ってないんだよな。ご機嫌なん  
てき。まったく インチキくさい 言葉じゃないか。 (村上訳, p.177)

[J2] ステキ、か。どんな言葉がきらいとって僕はステキっていう言葉ぐらいきらいなのはない  
んだな。 インチキな においがするよ。 (野崎訳, p.166)

이 작품에서 「phony」는 「オモテのキーワード」이며 「ウラのキー  
ワード」는 「fragile」이다<sup>13)</sup>. 「phony」<sup>14)</sup>란 말은 작품 안에서는 순수  
(innocence)의 반대 개념으로 쓰이는 홀튼이 자주 쓰는 말투 중의 하나이  
다. 「phony」의 한국어역은 세 사람 모두 「가식적인, 위선적인」의 비슷한  
뉘앙스로 번역되었고, 일본어역에서도 「インチキくさい, インチキな」와 같  
이 비슷한 어감으로 번역되어 한·일 번역 공히 충실성과 가독성 면에서  
무난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 5.3 「kill」의 한·일 번역 비교

「kill」의 의미 : It killed me. : やられたね。参ったよ。いやになっちゃうよ。

죽여준다. 죽인다. 질려버린다. 질린다.

It near killed me. : 死ぬかと思ったよ。もう少しで死ぬところだったぜ。

It damn near killed me. : 홀튼이 습관적으로 자주 쓰는 말이다.

The best one in it was “The Secret Goldfish.” It was about this little  
kid that wouldn’t let anybody look at his goldfish because he’d bought  
it with his own money. **It killed me.** (Salinger, p.6)

13) 松岡正剛の千夜千冊. 第四百六十五夜

<http://www.isis.ne.jp/mmn/senya/senya0465.html>

14) 주인공 홀튼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위선과 기만과 가식이 없는 정직하고 성실한 세계이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이러한 위선과 기만의 세계를 두고 「phony, 사이비」  
라고 부른다. 김옥동(2001) 『미국 소설의 이해』. 서강 인문정신 006. 종합공동체소나무간행.  
p.317

[K1] 그 단편집에 제일 잘된 것이 「비밀 금붕어」인데, 그것은 자기 돈으로 산 금붕어라고 해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어느 꼬마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이야기는 나를 매료시켰다. (이덕형역, p.8)

[K2] 이 단편집에서 제일 괜찮은 작품은 「비밀 금붕어」라는 건데요, 제 돈으로 산 금붕어라고 해서 아무한테도 금붕어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어떤 꼬마 놈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죽여준다구요. (김옥동·염경숙역, p.6)

[K3] 그 단편집에서 단연 최고는 「비밀 금붕어」였다. 자기가 번 돈으로 금붕어를 샀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한 꼬마에 대한 이야기이다. 나는 그 소설에 매우 감동했다. (공경희역, p.10)

[J1] かでもいちばんいいのは「秘密の金魚」っていう短編で、誰にも自分の金魚を見せようとしないうちの子どもの話だ。どうして誰にも見せないかっていうとき、その子が自分のお金で買った金魚だからなんだ。これにはもう参っちゃったね。(村上訳、p.6)

[J2] その中で一番いいのは、「秘密の金魚」っていう奴だ。自分の金魚をどうしても人に見せたがらない子供のことを書いたものなんだ。これには参ったね。(野崎訳、p.6)

「kill」의 한국어역에서는 김옥동·염경숙역만이 「죽여준다구요」라는 원문과 가장 유사한 어감으로 번역되었으며, 이덕형역의 「매료시키다」와 공경희역의 「매우 감동했다」는 원문의 어감을 살리지 못한 부정확한 번역이 되고 말았다. 「kill」의 번역에서도 한·일 역자들은 십대 청소년들이 즐겨 사용하는 속어와 비어의 번역에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 특히 김옥동·염경숙역은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말의 속어나 비어를 최대한 활용하여 원작의 어감을 살리려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똑같은 「It killed me.」라도, 번역은 「本当に参ったよ」라든가 「いやになっちゃうよ」라든가 「笑っちゃうね」등의 몇 가지 선택 갈래가 있어, 다양한 의미가 있는 「kill」이라는 단어를 언제나 한 가지 일본어로 재현하는 것은 무리이며 선별해서 번역할 필요가 있다고 무라카미는 말했다.<sup>15)</sup>

#### 5.4 「you」의 한·일 번역 비교

「you」의 의미: あなた(たち)、君、お兄さん (너, 오빠)

15)村上春樹·柴田元幸(2003)『翻訳夜話2 サリンジャー戦記』. 文芸春秋. p.110

화자인 홀든이 「you」를 향해 말을 걸고 있다. 이 때 「you」를 말을 듣는 존재로 번역하느냐, 혹은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느낌은 달라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홀든이 자주 구사하는 「you」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여동생 피비가 홀든을 부르는 호칭은 「오빠」가 아니라 「あなた, 너」가 되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귀여운 여동생이 아닌, 자신의 일부이며 과거로부터 빠져나온 가설(假說)이며 환영이기 때문이다.<sup>16)</sup>

If **you** really want to hear about it, the first thing you'll probably want to know is where I was born, and what my lousy childhood was like, (중략), and all that David Copperfield kind of crap, but I don't feel like going into it,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Salinger, p5)

[K1] 정말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아마 제일 먼저 듣고 싶은 것은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구차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으며, (중략) 그러니까 데이비드 코퍼필드식의 시시껄렁한 이야기 말이다. 그러나 사실 나는 그런 이야기는 입에 담고 싶지 않다. (이덕형역, p.7)

[K2] 정말로 이 이야기를 꼭 듣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내 거지같은 유년시절이 어땠으며, (중략) 그러니까 온통 시시콜콜하게 내력이나 캐는 데이비드 코퍼필드식 얘기들 말이지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난 그런 이야기는 늘어놓고 싶지 않습니다. (김옥동·염경숙역, p.5)

[K3] 정말로 이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끄적했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중략) 와 같은 데이비드 코퍼필드식의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알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 않다. (공경희역, p.9)

[J1] こうして話を始めるとなると、君はまず最初に、僕がどこで生まれたとか、どんなみっとも

16) 村上春樹・柴田元幸(2003) 前掲書 pp.48-49

또한, 무라카미는 「you」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한 경우도 있지만, 빈도로 따지면 세 네 번 중에 한 번 정도라고 말한다. 그 기준으로는 자연스러움이나 정확함이 지켜지고 있는지의 문제보다는 감각적인 문제였으며, 영어와 일본어가 지닌 성격의 차이에 의한 것이었다고 했다. 『キャッチャー』 작품은 「you」라는 단어를 기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you」의 대상이 홀든이기도 하고 독자이기도 한 교묘한 장치(기법)를 쓰고 있다고 했으며, 원작에서 완벽하게 구사되고 있는 「you」를 번역에서도 멋지게 소화하려고 했다고 말한다.: 村上春樹・柴田元幸(2003) 前掲書 pp.113~114

ない子ども時代を送ったとか、(중략)その手のデビット・カッパフィールド的なしょうもないあれこれを知りたいがるかもしれない。でもはっきり言ってね、その手の話をする気になれないんだよ。(村上訳、p5)

[J2] もしも君が、ほんとにこの話を聞きたいんならだな、まず、僕がどこで生まれたとか、チャチな幼年時代はどんなだったのかとか、(중략)そういった《デービット・カパーフィールド》式のくだらないことから聞きたがるかもしれないけどさ、実をいうと僕は、そんなことはしゃべりたくないんだな。(野崎訳、p5)

위의 예문은 이 작품의 맨 처음 시작 부분이다. 한국어역은 세 권 모두 「you」의 번역이 빠진 충실하지 못한 번역이 되고 말았다. 그에 비해 무라카미 하루키와 노자키 다카시의 일본어역은 「君」로 정확하게 번역함으로써 어감을 적절하게 살린 충실한 번역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호밀밭의 파수꾼』에서는 「you」를 어떻게 해독하느냐는 번역의 스탠스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된다. 그러한 점에서 번역가가 「you」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번역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sup>17)</sup>

## 5.5 「and all」의 한·일 번역 비교

「and all」의 의미 : …やなんか、…など、…とか、…とかなんとか  
(…와 같다는 등)

Oh...well, about Life being a game **and all**. And how you should play it according to the rules. (Salinger, p.16)

[K1] “저, 인생이란 게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덕형역, p.16)

[K2] “오, … 글썄, 말하자면 인생이란 경기와 같다는 등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규칙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도 하셨고요.” (김옥동·염경숙역, p.17)

[K3] 저 … 그러니까 인생은 운동경기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규칙에 따라

17) 김춘미(2004) 「소설가와 번역」. 『2004년도 한국일본학회 산하학회합동학술대회 Proceeding s』. 한국일본학회. p.171

서 시합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경희역, p.18)

[J1] あの……えーと、人生とはゲームだとか、そういう内容のことでした。君はルールに従ってプレイなくてはならないんだとか。 (村上訳, p.17)

[J2] そりゃ……そうですね、人生は競技だ、とかなんとか。だから、ルールに従ってや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かですね。 (野崎訳, p.16)

홀든 특유의 말투 중 하나가 「and all」 을 말끝에 붙이는 것으로 홀든의 말버릇이기도 하다. 「goddam」 이나 「and all」 은 대부분의 경우 리듬을 살리기 위한 어법이지만, 원문의 리듬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도 번역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국어 역에서는 김옥동·염경숙역만이 원어의 어감을 제대로 살리는 충실한 번역이 되었고, 이덕형역에서는 「and all」 의 번역이 아예 누락되었으며 공경희역도 「and all」 의 정확한 어감을 전달하지 못한 부정확한 번역이 되었다. 한편 일본어역에서는 원문에 충실한 정확한 번역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5.6 「strictly for the birds」 의 한·일 번역 비교

「strictly for the birds」 의 의미 : ‘경멸스런, 형편없는, 시시한, 하찮은,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의 의미로 구어체에 많이 쓰이는 관용구이다. あきれ(어이가 없는, 기가 막히는,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오는), 冗談にもほどがある(농담도 정도가 있다, 당치도 않은 소리다, 웃기지 마라), やれやれ(아이구 맙소사)

"Since 1888 we have been molding boys into splendid, clear-thinking young men." Strictly for the birds. (Salinger, p.6)

[K1] “1888년 창립 이래 본교는 항상 우수하고 명철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양성해왔습니다.”라고 적혀있다. 그건 어이없는 말이다. (이덕형역, p.9)

[K2] “1888년 개교 이래 본교는 성실하고 명철하게 사고를 할 수 있는 젊은이를 양성해 왔습니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어림 만 푼어치도 없는 소리라고요. 빌어먹을. (김옥동·염경숙역, p.7)

[K2'] "1888년 개교 이래 본교는 성실하고 명철하게 사고를 할 수 있는 젊은이를 양성해 왔습니다."고 말합니다. 정말이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라구요. (김옥동·염경숙역[1994년도판], p.7)

[K3] <1888년 이래로 우리는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훌륭한 젊은이들을 양성해 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공경희역, p.11)

[J1] 「一八八八年以来、本校は少年たちを明晰な思考をする優秀な若者へと育成して参りました」ってさ。 まったくもう、冗談にもほどがあるじゃないか。やれやれ。 (村上訳、p.7)

[J2] 「一八八八年の創立以来、本校は、常に頭脳明晰にして優秀なる青年を養成してきた」。 《養成》がきいてあきれよ。 (野崎訳、p.6)

「strictly for the birds」번역에서 재미있는 점은, 1994년도에 출간된 김옥동·염경숙역에서는 「정말이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라구요」와 같이 당대에 유행하던 유행어로 번역되었으나, 2005년도 개정판에서는 「정말로 어렵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라고요. 빌어먹을」의 속어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개 유행어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한 시기에 갑자기 생겼다 사라지고 마는 속성이 있으므로 사라진 유행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재 독자의 가독성을 염두에 둔 번역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에 비해, 이덕형, 공경희역은 독자에게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쉽게 풀어서 번역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strictly for the birds」의 김옥동·염경숙역은 독자의 가독성에 보다 많은 공을 들인 흔적을 엿볼 수 있으며, 이덕형, 공경희역도 충실성과 가독성 면에서 문제가 없는 충실한 번역이라 할만하다. 한편 일본어역에서도 무라카미역의 「まったくもう、冗談にもほどがあるじゃないか。やれやれ。」와 노자키역의 「《養成》がきいてあきれよ。」의 번역도 원문의 어감과 주인공의 말투를 적절하게 살린 충실한 번역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6. 나오며

지금까지 소설 『The Catcher in the Rye』의 주인공 홀든 콜필드의 어휘·말투를 중심으로 한국어역과 일본어역을 충실성과 가독성의 관점에서

비교·고찰함으로써 한·일 번역의 공통점과 차이점, 나아가 번역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역자 3인과 일본어역자 2인의 번역을 비교·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가독성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충실하지 못한 경우  
⇨ 「and all」의 이덕형역, 공경희역
- ② 충실성은 있으나 가독성이 부족한 경우  
⇨ 「sad」의 김옥동·염경숙역
- ③ 우리말 자체로는 문제가 없으나 원문과 대조하면 원문에는 없는 내용을 창작한 경우  
⇨ 「sad」의 공경희역, 「kill」의 이덕형역, 공경희역
- ④ 원문의 번역을 아예 누락한 경우  
⇨ 「and all」의 이덕형역, 「you」의 이덕형역, 공경희역, 김옥동·염경숙역
- ⑤ 임의로 번역을 첨가한 경우  
⇨ 「sad」의 공경희역
- ⑥ 단어와 구절 등을 세심하게 담아내기보다는 대충 넘어가는 부정확한 번역의 오류를 범한 경우  
⇨ 「sad」의 공경희역
- ⑦ 원문의 문장을 자의적으로 나누어 번역한 경우  
⇨ 「sad」의 이덕형역, 공경희역, 무라카미역
- ⑧ 원문의 문장을 자의적으로 통합하여 번역한 경우  
⇨ 「kill」의 이덕형역, 김옥동·염경숙역

번역에 왕도는 없다. 누구나가 번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도 제대로 된 완벽한 번역을 하기란 불가능하다. 어떤 번역이 좋은 번역인가에 대한 논의는 번역자의 수만큼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원문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충실성과 번역문의 가독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번역이 좋은 번역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 【参考文献】

- 김성곤(2005) 『J.D. 셀린저와 호밀밭의 파수꾼』. 살림출판사. pp.3-93
- 김옥동·염경숙역(2005년) 『호밀밭의 파수꾼』. J.D. 셀린저. 현암사
- 공경희역(2001) 『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 민음사
- 이덕형역(1998) 『호밀밭의 파수꾼』. J.D.셀린저. 문예출판사
- 영미문학연구회번역평가사업단(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주)창비.  
pp.4-35, pp.223-241
- 野崎孝訳(1964) J.D.サリンジャー 『ライ麦畑でつかまえて』. 白水社
- 村上春樹訳 (2003) J.D.サリンジャー 『キャッチャー・イン・ザ・ライ』. 白水社
- 村上春樹·柴田元幸(2003) 『翻訳夜話 2 サリンジャー戦記』. 文芸春秋  
pp.40-51, pp.93-129
- 村上春樹(2002年 8月) 『カチの声』 「翻訳を語る - 翻訳すること、翻訳されること -」  
国際交流基金 ソウル文化 センター. pp.1-3
- J.D.Salinger (2003) 『*The Catcher in the Rye*』. KODANSHA English Library

## 要 旨

本稿はサリンジャーの小説『キャッチャー・イン・ザ・ライ』の主人公、ホールデン特有の語彙と言葉づかいが作品に与える意味及びその効果について探り、韓国語訳と日本語訳を忠実性と可読性の観点から比較することで、韓・日翻訳の共通点と相違点、翻訳の多義性及び翻訳の限界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

小説『キャッチャー・イン・ザ・ライ』の翻訳において最も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部分は、主人公である十六歳の少年ホールデンが頻繁に駆使する卑語及びホールデン特有の語彙と言葉づかい、そして自分の考えを長く叙述する主人公の内的告白による言葉のニュアンスを、どうすれば正確に伝達できるかという翻訳の正確性とニュアンスの伝達の適切性及び到着言語表現の適合性にある。

本稿では、韓国語翻訳本三種類と、日本語翻訳本二種類を考察対象として選択し、忠実性と可読性の観点から比較した結果、次のことがわかった。

①可読性はあるが、相対的に忠実ではないもの、②忠実性はあるが、可読性が不十分であるもの、③韓国語自体は問題がないが、原文と対照すれば、原文にはない創作をしたもの、④原文の内容を初めから省いたもの、⑤翻訳者が任意に翻訳を添加したもの、⑥単語や文章などを一つ一つ細心に翻訳するより、大まかに意識する不正確な翻訳の間違いを犯したものなどが見られ、その他、⑦原文の文章を翻訳者が恣意的に分けて翻訳したもの、また、⑧統合して翻訳したものもあった。

翻訳に王道はない。翻訳は誰でもできる。しかし、誰もが、完璧な翻訳をするというのは不可能であろう。しかし、本稿で考察したように、少なくとも原文の内容と形式に対する忠実性と翻訳文の可読性を同時に満足させる翻訳がより良い翻訳であるという事実だけは明らかである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キャッチャー・イン・ザ・ライ』、ホールデンの語彙と言葉づかい、忠実性、可読性、翻訳の正確性、ニュアンスの伝達の適切性、到着言語の適合性

투 고 : 2006. 5. 31  
1차 심사 : 2006. 6. 10  
2차 심사 : 2006. 7. 1

住 所 : (431-76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현대홈타운 219 동 1101 호  
電 話 : 031-477-7876  
e-mail : ksohlee@empal.com